

# 전체 주제

##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

메시지 3 번과 4 번

### 요한의 사역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분배

성경: 요 1:1, 14:7-21, 23, 3:34, 16:13-15, 요일 2:27, 3:9, 계 21:9-10, 22:13

- I. 요한의 글들의 주제는 온 우주의 실재와 중심과 내용이다. 이 주제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분배하시어 그들 모두를 신성하게 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충만하고도 영원토록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실재와 중심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
- II. 요한의 글들은 신성한 삼일성이 그분 자신을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밝혀 준다.
- A.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이신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길이신 아들을 통해 가야 한다.
  - B.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시어 믿는 이들 가운데서 보이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들께서 믿는 이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체현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절들에서 주님은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상호적으로 서로 안에 내주하신다.
  - C.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아들께서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어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영께서 아들의 실재화로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D. 목표이신 아버지와 체현이신 아들과 실재화이신 그 영께서 그릇인 우리 안에 계신다. 목표와 체현과 실재화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한 보배이다 — 고후 4:7.
  - E.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실 것임을 보여 준다.
    - 1. 목표이신 아버지는 체현이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 체현은 그분의 실재화이신 그 영 안에 있으며, 이 실재화는 지금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영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매일, 심지어 매시간 누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 2.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영은 언제나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신다.
    - 3.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엘리베이터 구원’을 믿는 것이다.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구원받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
    - 4.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계단’이다. 우리는 이 계단 위에 있지만, 계단의 제일 윗부분에서 얻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5. 우리는 ‘지하’가 아닌 ‘제일 위층’에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제일 위층으로 이끌려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 고전 2:9-10, 골 3:1-2.
  6.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교통을 나눌 때 그분의 임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아버지는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 요 14:21, 23.
  8. 우리는 아들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시는 것 안으로 더욱더 이끌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9. 그럴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 F.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신성한 삼일성을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는 신성한 전달이 제시되어 있다.
1. 이 전달은 전류의 전달과 똑같다. 전기 스위치가 켜지면, 전류 곧 전기의 움직임이 있게 되며, 이 움직임이 전달이다 — 비교 롬 8:2, 살전 5:16-20.
  2. 첫째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다 — 요 16:15상.
  3. 둘째로,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 영께서 받으신다 — 요 16:14하.
  4. 셋째로, 그 영께서 아들에게서 받으신 모든 것이 믿는 이들에게 알려진다 — 요 16:13, 15하.
  5. 결국, 신성한 삼일성의 온 존재와 신성한 삼일성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영한 동번 찬송가 501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382장) 3절은 이러한 전달에 대해 말한다.
    - a. “아버지는 아들 안에 / 아들 풍성 영 안에 있네 / 그 영 내 안에 안식하시며 / 내 생활의 실재 되네”.
    - b. 이러한 전달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그 영에게로, 그 영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이다.

### Ⅲ. 우리는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요한이 공급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 A. 요한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생명수의 강으로서 흐르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 요 1:1, 3:36, 5:26, 계 22:1.
- B.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로고스 곧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분이시다 — 요 1:1, 요일 1:1, 계 19:13.
- C.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재에 의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시다 — 요 1:18, 3:16, 1:34, 20:31.
- D.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분배를 위해 시간에 있어서 영구하실 뿐 아니라 본성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신성하시다 — 요일 1:2, 요 11:25, 14:6.
- E.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을 주시는 분이시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 — 요 3:34.

- F. 우리의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이시다(요 1:51, 계 1:13). 그분은 구속을 위한 사람의 아들로써,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도록 하셨다.
- G.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였다(요 1:29, 계 5:6, 7:14, 17, 13:8, 22:1). 구속하시는 어린양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분이시다(비교 출 12:8-11).
- H.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다(요일 2:2).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히 9:28)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진정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희생 제물이시다.
- I.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변호자이시다(요일 2:1). ‘변호자’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 편에서 돕도록 요청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조력자이다. 이 말은 또한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변호자, 법률 고문, 혹은 중재자이다.
1.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사탄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양의 피로 그를 이길 수 있다.
  2. 사탄은 우리가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불의하다며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아, 의로운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변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3. 우리는 사탄에게 “입을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어린양께 할렐루야! 피로 인해 할렐루야!”라고 말하며 어린양을 찬양해야 한다.
  4.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생명이 한 번 더 우리 안으로 더 분배된다. 생명 분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변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계신다.
- J. 우리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계 22:13상). 생명의 다함이 없는 분배를 위해 그리스도는 헬라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인 알파이시고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이시며 그 사이의 모든 글자이시다.
- K.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계 2:8, 22:13하), 곧 영원히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1. 박해하는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어떤 것도 그분을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분보다 나중에 존재할 수 없다.
  2. 모든 것은 그분께서 통제하시는 한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과 모든 곳을 차지하신다.
- L.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시다(계 22:13하).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것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주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 없이는 기원도 완결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비교 롬 11:36).
- M.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계 3:14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 혹은 근원이신 주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근원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근원이신 주님을 떠남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렘 2:13).
- N.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그리스도는 “나는 ...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려면 반드시 살아 계신 분이셔야 하며, 그럴 때 교회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수 있다 — 딤후 3:15.

- O. 그리스도는 기록하신 분과 참되신 분이시다(계 3:7).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주님은 기록하신 분, 참되신 분이시다. 회복된 교회는 이분에 의해, 이분과 함께 기록하고 세상에서 분별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참되고 신실할 수 있다.
- P.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 계 3:14하.
1. 바벨에서의 혼돈은 모든 언어를 파괴했지만,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두 단어는 파괴되지 않았다. ‘아멘’은 바로 ‘그렇다’라는 뜻이다.
  2. 아멘은 일종의 영원한 ‘예’이다. ‘그렇다’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아멘’, 곧 ‘그렇다’이다. 이것은 생명 분배를 위한 것이다.
  3. 그리스도는 (‘견고한’, ‘확고한’, 또는 ‘신뢰할 만한’을 의미하는) 아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 Q. 요한이 공급한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출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요 3:16), 주님 안에 거하고 빛 안에서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교통에 참여하며(요일 1:3-7, 2:6),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받고(20, 27절), 신성한 씨로 인한 신성한 출생에서 비롯된 미덕들을 누리며(3:9, 2:29, 4:7, 5:1, 4, 16-21), 예수님의 증거 곧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등잔대들이 되고(계 1:9-12, 20), 생명의 표현으로서 첫 열매를 포함한 수확물이 되며(14:1-5, 15-16), 그리스도의 증거와 만 족인 어린양의 신부가 된다(요 3:29-30, 계 19:7-9).
- R. 결국 삼일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심으로, 삼일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 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되실 것이다 — 계 21:2-3, 9-10, 22-23, 22:1-2.